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도립국악단·극단 설치 공약(空約)되나

# 민선 7기 3년차 눈앞... 용역비도 미반영

지난해 10월 용역심의 통과 1년여 동안 후속 조치 없어 도립국악단 촉구위는 반발 "제주도정 진정성 의심된다"

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관련 심의를 통과했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문화정책과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엔 새해 예산으로 용역비 90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올렸지만 그 역시 반영이 안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법적인 용역 외에는 예산이 전부 잡혔다"고 말했다.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5개 도립예술단 운영과 재정 투입 상황, 지역민 밀착도 등이 신규 예술단 출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실제 성사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5곳에 연 130억 예산 부담 토로=지난해 기준 제주도가 5개 도립예술단에 투입한 예산은 135억원이 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점을 거론하며 "공약 사항을 지켜야겠다"

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로운 장르의 도립예술단이 생겼을 때 제주도가 추가로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제주도립국악단 촉구위원회'까지 꾸린 제주 국악계는 제주도정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위원의 관련 질의가 예정된 점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제주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약 채택 이전부터 지자체에 공립극단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제주연극협회는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소극장연극축제가 마무리되면 도립극단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래 제주연극협회 회원 극단은 물론 지역 연극계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만큼 도립극단 설치 공약과 관련한 이들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민선 7기 제주도정이 공약한 제주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 설치(본보 6월 4일자 8면)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제주도지사 공약인 만큼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선 7기 출범 3년차를 앞둔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로 넘긴 2020년 새해 예산에는 관련 용역비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두 신규 예술단에 2022년까지 33억 투입=민선 7기 제주도정 공약집에서 도립국악단·도립극단 설립과 관련해 제시한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도립국악단 및 도립



지난해 열린 제주늘푸른음악회.

## 20년 째 제주를 품은 창작가곡 나눔

제19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창작가곡·합창·동요 발표

20년 전, 진근흠 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만든 창작가곡을 발표한 일이 시작이었다. 2001년에는 '아름다운 제주늘푸른음악회'란 이름으로 제주 시인 7명이 쓴 시에 서정적 선율을 얹었다. 2004년부터는 지금의 '제주늘푸른음악회'란 제목이 붙었다.

한 편의 시와 창작 음악이 만났을 때 제주늘푸른음악회. 이제는 순수 비

영리 음악단체로 동명의 음악회를 이끌고 있는 이들이 이달 23일 오후 6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아홉번째 무대를 이어간다.

이날 공연에는 고훈식 한상완 이여산 강윤심 양순진 김란 등 제주 안팎에서 활동하는 문학인 13명의 작품이 음악으로 살아난다. 이세석 박경규 진정숙 김은혜 조치노 김현욱 심옥식 안경수 등 11명의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다. 윤이나 송기창 김현경 배서영 김광정 김기선 등 6명의 성악가는 창작곡 등을 실어나른다.

제주심포니앙상블, 펠롱첼로앙상블, 앙겔루스 남성중창단,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도 무대를 빛낸다.

제주어로 쓴 '자리물회', '9월 제주하늘', '고내 삼촌', '제주의 밤은 깊어가고', '몽돌바당' 등 제주의 삶과 풍경을 담은 곡을 독창이나 합창으로 들을 수 있다. '꼬마 해녀'는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요로 탄생시켰다. 마지막 순서에는 제주늘푸른음악회를 위해 헌신해 온 진근흠 시인의 시에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이 곡을 붙인 '아름다운 제주(99)'를 다함께 부른다.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064)728-1509. 진선회기자

# 2020제주비엔날레 '창조자 할망'에 주목

내년 5월부터 3개월 예정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 등 여성·지역작가 참여 늘 듯 이달 21~22일엔 사전 행사

내년 5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제주 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등지에서 펼쳐지는 2020제주비엔날레는 '할망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세다' (가제)를 주제로 열린다.

주제어인 '할망'은 설문대할망의 그것처럼 생명과 포용을 상징하는 창조자이자 예술가를 의미한다. 국제전시회를 매개로 제주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거점지의 면모를 드러내며 제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확장 가능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여성, 지역성, 구전된 이야기가 담기는 만큼 이번 두번째 제주비엔날레는 여성 작가와 제주 작가를 포함 기존 비엔날레에 비해 국내 작가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작가는 홍 카이 왕, 장민승, 피오나 탄, 라타나 반디, 애드리안 파이퍼 등 50여명(팀)에 이른다.

이들은 무속 신앙과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해 문화적 혼성이 이루어진 제주의 특징을 퍼포먼스, 사진, 영상, 게임, 문학, 영화 등 여러 빛깔 작품으로 다층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의 작업 과정은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 촬영으로 제작된다.

주최측인 도립미술관은 2020제주비엔날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 21일 '어루만지는 시간들: 지역성과 동시대 미술현장'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의 신화, 구전과 기록의 역사, 지역성과 동시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튿날에는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구민자씨가 진행하는 '티 퍼포먼스: 토크-티(Talking Tea)'가 마련된다. 제주에 자생하는 식물과 식재료로 우려낸 차를 제주도민과 즐기는 시간이다.

김인선 예술감독은 "제주의 문화, 자연, 예술, 도시자원 등을 예술과 결합해 제주를 둘러싼 문화예술 생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제주의 문화적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며 차별화된 비엔날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비엔날레 홈페이지(jeubiennale.org) 참고. 문의 02)6711-4768, 064)710-4275. 진선회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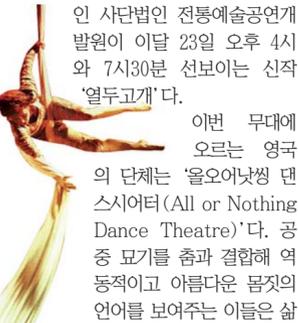
## 우리 가락과 공중댄스가 만났을 때

한·영 합작 공연 '열두고개' 스코틀랜드 '올오어낫씽' 전통예술개발원과 한무대

일년 열두달, 황도 12궁 별자리, 십이지,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아리랑 열두 고개, 제주큰굿의 열두거리. 제주와 영국 스코틀랜드 예술가들이 완전한 숫자로 불리는 12를 주제로 담은 한·영 합작공연을 서귀포에서 펼친다. 김정문화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인 사단법인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이 이달 23일 오후 4시와 7시30분 선보이는 신작 '열두고개'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영국의 단체는 '올오어낫씽'의 단체인 '올오어낫씽'이다. All or Nothing Dance Theatre'다. 공중 모기를 춤과 결합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몸짓의 언어를 보여주는 이들은 삶



### 문화가 쏘지

#### 흔디손심영 합창단 공연

제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민과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제주 흔디손심영 합창단(단장 김소희)'이 제주하나센터(센터장 정수화) 지원으로 이달 23일 오후 7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합창단은 고향, 가족, 그리움, 사랑을 주제로 북한이탈민들의 삶과 희망을 음악에 실을 예정이다. 제주남성중창단 파트로보체, 제주올레(99)'를 다함께 부른다.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064)728-1509. 진선회기자

#### 우도 책방서 '책 헤는 밤'

우도에 있는 밤수지맨드라미 책방(우도해안길 530)에서 '우리가 물랐던 책방 한권'이란 이름으로 3일간 3명의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책 헤는 밤'을 꾸민다.

이달 21~30일에는 황정원 드로잉 전 '가만히'가 펼쳐진다. 이 기간 첫날 오후 7시에는 황정원 작가와 대화가 진행된다. 11월 22일 오후 7시에는 윤동희 북노마드 대표를 초청해 '독립출판이란'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한다. 11월 23일 오후 7시에는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뮤지션 요조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국제사진영상협회 교류전

(사)한국국제사진영상협회(이사장 김남규) 다섯 번째 회원전이 이달 21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제주와 해외 풍경을 담은 사진 60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세권의 '해미읍성의 겨울', 강용준의 '백두산 소천지', 변승만의 '일출봉의 아침', 이범진의 '추자 지구도 해무', 이영란의 '가파도의 봄', 허영숙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 등이다. 앞서 한국국제사진영상협회회는 지난달 '장백산-한라산' 민간사진교류전을 개최했다. 문의 010-4414-6325.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길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오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정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썩(부식)이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100% 스텐연통 설치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



초기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논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도방품주의바랍니다.